

[ TV ]

TV 16일



★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우리 프로엔 2% 부족한 개그가 있어요”

SBS '라디오 웃찾사' 진행 맡은 조호상·김범용



“TV에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보다가 라디오 일반인 MC를 공모한다는 자막을 봤어요. 그 자막이 TV를 타고 가슴으로 흘러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충치면 큰일나겠다” 싶어 바로 응모했더니 덜컥 붙어버렸다. 최근까지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틈틈이 아동극에 출연하던 조호상(30·왼쪽) 씨는 이제 매일 SBS 라디오국으로 출근한다.

TV ‘웃찾사’의 ‘누구야’ 코너로 알려진 개그맨 김범용과 함께 SBS 러브FM(103.5MHz) ‘라디오 웃찾사’(월~금요일 오후 2시20분)를 책임진다. 지상파방송 라디오에서 일반인 MC를 투입하는 것 자체가 시적인 일이다.

“일반인 MC는 과격이잖아요. 뽀하니가 부모님 얼굴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을 한번도 안 하셨는데 덕분에 공부를 잘 못했어(웃음).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믿기지 않아요.”(조호상)

“라디오 웃찾사”는 일반인의 ‘개그 배틀’로 한낮의 웃음을 끌어모은다. 개인기로 무장한 청취자 2명이 매일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입담 대결을 벌이고 한 주의 우승자에게는 러브FM의 주파수를 상징하는 103.5만원이 지급된다.

방송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 MC에 일반인 청취자들이라 실수할 수도 있어 ‘덜렁덜’ 수

도 있다. 김범용이 가운뎃서 중심을 잡는다. “일반인 MC 뽑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개그 배틀 참여하시는 청취자들도 다들 참 잘하시더라고요. 다만 방송 경험이나 요령이 없으니까 짜여진 시간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시죠. 우리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부족해 보이는 개그가 단점이자 무기인 것 같아요. ‘모 아니면 도’지만 ‘꼭 모’였으면 좋겠어요.”(김범용, 이하 김)

연예인이 게스트로 나오면 익숙한 목소리에 누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라디오 웃찾사’는 MC까지 일반인이라 목소리가 영 낯설 수도 있다. 일반인에게서 매력을 뽑아내는 만큼 시행착오도 겪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저러도 ‘라디오’ 진행하더니 왜 안아나오냐고 해요. 아버지들 들어보시더니 ‘정신없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주로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던 분들은 처음에 모르는 목소리가 많이 섞여서 헷갈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차차 자리를 잡겠죠.”(김)

MBC ‘주몽’ 연방 방송 힘들 듯

송일국, 연방불참 의사 밝혀...MBC “계속 설득하겠다”

MBC 특별기획드라마 ‘주몽’의 연방 방송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타이틀을 주몽 역의 송일국이 최종적으로 연방 불참 의사를 MBC에 밝혔기 때문이다.

송일국의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연방 방송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MBC 측에 전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반복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송일국 측은 이어 “출연료 등의 조건은 고려사항이 아니고 작품과 시청자를 위한 결정”이라며 “다만 이야기 전개상 1~2회 정도 연방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주몽’의 연방 방송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MBC 드

라마극 정운현 국장은 “아직 연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MBC는 아직도 ‘주몽’의 연방에 대한 의지가 있고 연기자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놓았다.

MBC는 60부로 기획한 ‘주몽’을 25회 연방해 내년 3월까지 방송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주몽’은 14일 48.1%(TNS미디어코리아 조사)로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Advertisement for Kubeo (국제보청기) featuring a woman with a hearing aid and promotional text.

케이블·위성TV 16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